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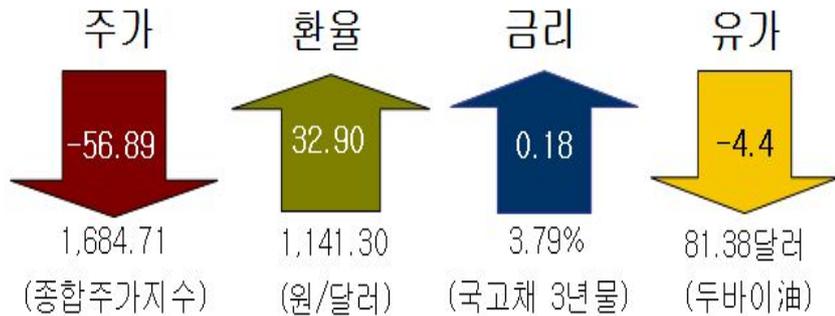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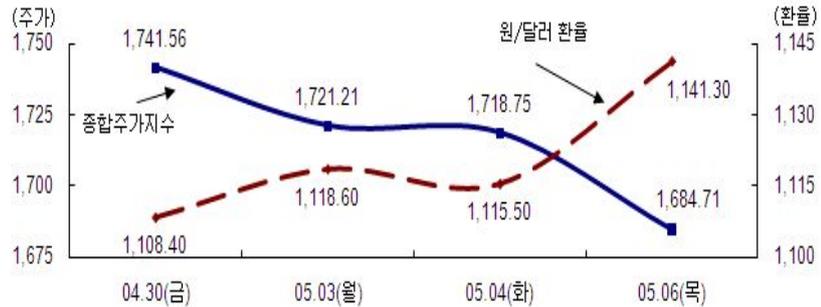
10-18(통권 398호)  
2010.05.07



■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 남유럽 재정위기의 교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30~5.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 남유럽 재정위기의 교훈 .....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조 호 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남유럽 재정위기의 교훈

#### ■ 남·북유럽 국가의 경제 및 재정건전성 비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전혀 변함없고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CDS프리미엄도 조기에 안정되었으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가 확산 중에 있다. 북유럽 4국의 2009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30~50% 사이에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이하, 고용률은 4개국 평균 74.6%로 매우 양호하다. 이에 비해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율은 50%에서 120%, 재정적자는 5%에서 12%에 달하며, 고용률은 평균 63.4%로서 유럽연합 평균(65.4%)을 하회하고 있다.

#### ■ 북유럽 복지국가의 건전재정 성공 요인

남유럽 4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에 비해, 북유럽 4국이 '90년대 중반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요인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15년 전인 1993년경에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3국은 '80년대의 금융자유화와 자산버블에 따른 후유증으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둘째**, 재정적자의 빌미를 제공했던 **실업보험과 고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급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고령연금 개혁과 정부지출 상한 도입, 공기업 민영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실시했으며, **노르웨이**는 원유수출 대금으로 조성한 세계2위의 국부펀드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핀란드**는 '95년 집권한 사민당에 의해 이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삭감 등 재정긴축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었다. **셋째**, '90년대 이후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삭감과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사회보험료 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의 '85년과 '06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47.3%에서 49.1%로, 덴마크는 46.1%에서 49.1%로, 노르웨이는 42.6%에서 43.9%로, 핀란드는 39.7%에서 43.5%로 각각 증가했다. **넷째**,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이를 토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재정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스웨덴 자동차, 핀란드 정보통신, 노르웨이 에너지, 덴마크 풍력설비 등 북유럽 4개국 각기 특화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토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지출은 줄였지만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확대했으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북유럽국가들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와 이를 통한 높은 **人的자원 경쟁력**도 경쟁력 제고와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했다. **여섯째**,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세율과 조세부담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재정건전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보답했다.

#### ■ 교훈 및 정책 과제

**첫째**,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이나 사업의 재원 대책을 강화하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회복 시기에 맞춰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셋째**, 금융위기로 인해 뒤로 밀렸던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재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활력의 촉진과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人的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교육 투자,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높아질 조세부담을 리드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 <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

남·북유럽 국가의 경제 및 재정건전성 비교	
<b>남유럽국가들</b>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 하락, CDS프리미엄 폭등, 재정위기 확산 중</li> <li>- 고용률은 평균 63.4%로서 유럽연합 평균(65.4%)을 하회</li> <li>- 국가채무는 50%~120%이상, 재정적자는 -5% ~ -12%</li> </ul>
<b>북유럽국가들</b>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에도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CDS프리미엄 유지</li> <li>- 고용률은 평균 74.6%로서 유럽연합 평균(65.4%)을 훨씬 상회</li> <li>- 낮은 국가채무 비율(50% 이하), 낮은 재정적자(-3% 이하)</li> </ul>

북유럽 복지국가의 건전재정 성공 요인 (남유럽 국가와 비교)	
<b>여섯가지 성공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5년前 예방주사:</b>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93년 이후 강력한 재정긴축과 복지제도 개혁의 경험</li> <li>- <b>복지제도 개혁:</b> 실업보험과 고령연금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을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재정의 부담을 완화</li> <li>- <b>조세부담 지속 증가:</b> 1985년과 2006년의 국민부담률 비교 (스웨덴) 47.3% → 49.1%, (덴마크) 46.1% → 49.1% (노르웨이) 42.6% → 43.9%, (핀란드) 39.7% → 43.5%</li> <li>- <b>경상수지 흑자 유지:</b> 높은 산업경쟁력과 이를 토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거시경제 안정과 재정 건전화에 기여</li> <li>- <b>미래를 위한 지출 확대:</b>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여 산업경쟁력과 재정건전화에 기여</li> <li>- <b>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b> 공공부문의 투명한 행정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어야, 높은 세율과 조세부담을 국민들이 수용 가능</li> </ul>

교훈 및 정책 과제	
<b>교훈 및 정책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계하는 <b>재정준칙의 도입</b></li> <li>-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조세감면의 축소 등 <b>세원 확충</b>을 검토</li> <li>- <b>공적자금 투입된 과거 민간기업의 재민영화</b> 등 공기업 선진화</li> <li>- <b>공교육 혁신과 평생교육시스템 확충</b>을 통한 <b>人的 자원 경쟁력 제고</b></li> <li>- <b>향후의 높은 조세부담을 선도할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높은 신뢰도</b></li> </ul>

### 1. 남·북유럽 국가의 경제 및 재정건전성 비교

○ (국가 신용)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금융위기에도 국가신용등급이 전혀 변함없고 CDS프리미엄도 조기에 안정되었으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 확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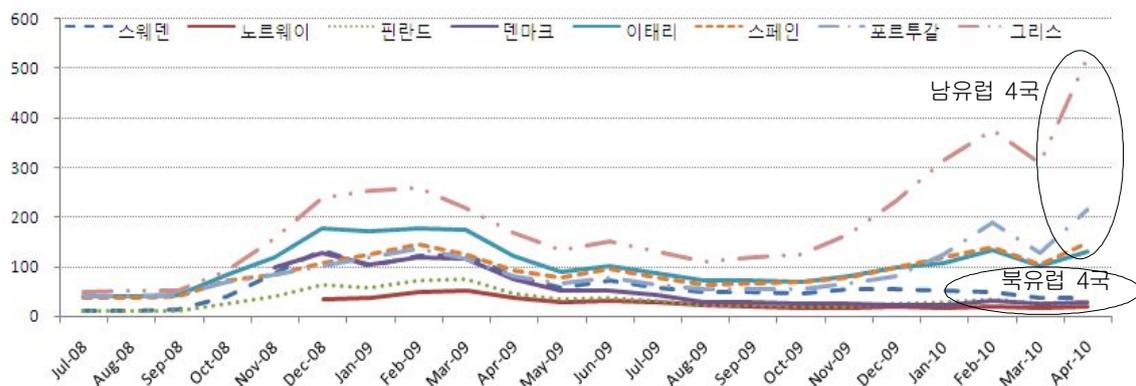
- 이태리를 제외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국은 최근 국가신용등급 하락
- CDS 프리미엄도 북유럽 4국은 40bp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522.5bp, 포르투갈은 214.7bp, 스페인은 149.3bp, 이태리는 130.7bp로 매우 위험

< 표 1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국가신용등급 비교

	Moody's		S&P		Fitch	
	신용등급	전망	신용등급	전망	신용등급	전망
스웨덴	Aaa (02/04/04)	안정적 (02/04/04)	AAA (04/02/16)	안정적 (04/02/16)	AAA (04/03/08)	안정적 (04/03/08)
노르웨이	Aaa (97/09/30)	안정적 (97/09/30)	AAA (92/07/27)	안정적 (92/07/27)	AAA (95/03/13)	안정적 (95/03/13)
핀란드	Aaa (98/05/04)	안정적 (97/03/07)	AAA (02/02/01)	안정적 (02/02/01)	AAA (98/08/05)	안정적 (98/08/05)
덴마크	Aaa (99/08/23)	안정적 (99/08/23)	AAA (01/02/27)	안정적 (01/02/27)	AAA (03/11/10)	안정적 (03/11/10)
그리스	A3- (10/04/22)	부정적 (09/12/22)	BB+ (10/04/27)	부정적 (10/04/27)	BBB- (10/04/09)	부정적 (10/04/09)
포르투갈	Aa2 (98/05/04)	부정적 (09/10/29)	A- (10/04/27)	부정적 (10/04/27)	AA- (10/03/24)	부정적 (10/03/24)
스페인	Aaa (01/12/13)	안정적 (97/03/07)	AA (10/04/28)	부정적 (10/04/28)	AAA (03/12/10)	안정적 (03/12/10)
이태리	Aa2 (02/05/15)	안정적 (06/10/19)	A+ (06/10/19)	안정적 (06/10/19)	AA- (06/10/19)	안정적 (06/10/19)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주 : 음영부분이 최근 신용등급의 하락을 나타냄.

< 그림 1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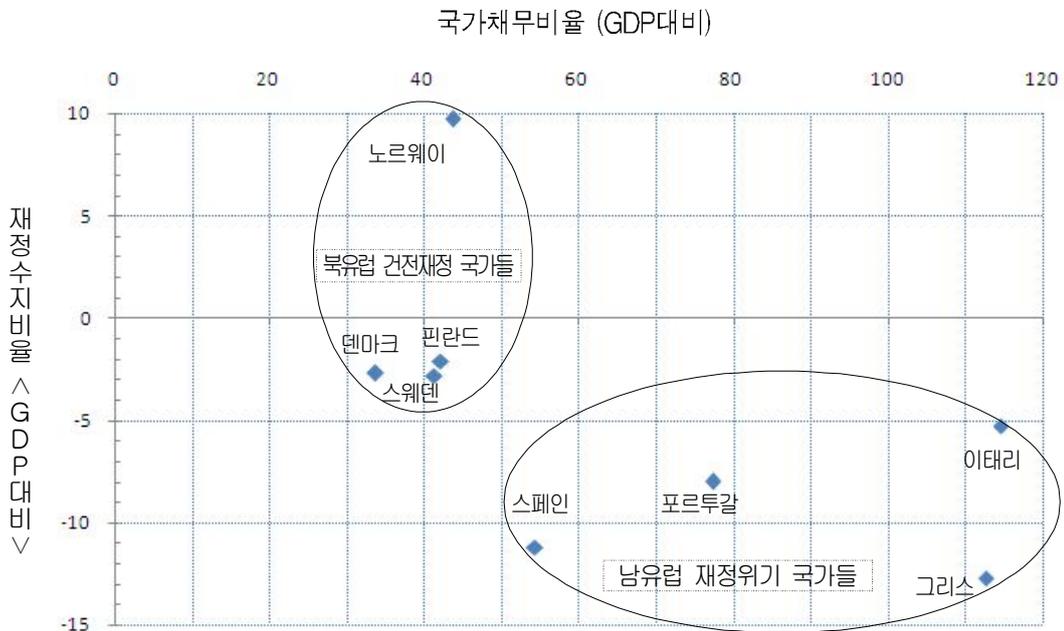
자료 : 로이터.

○(고용률) '07년 기준 북유럽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4.6%<sup>1)</sup>로서 유럽연합 27 개국 평균 65.4%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63.4%로서 유럽연합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북유럽 4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남유럽 4국의 경우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 북유럽 4국의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5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비율도 GDP의 3% 미만에 있어 양호함
- 아래 그림과 같이, 북유럽 4국은 그래프의 左上단에 몰려 있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일부 국가들(PIGS)은 右下단에 위치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산유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큰 폭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그림 2 > 북유럽과 남유럽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교 (2009년 기준)



자료 : OECD, EC, Eurostat.

주 : 2009년 기준.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는 Eurostat 자료 이용.

1) 2007년 기준 고용률을 보면, 덴마크 77.1%, 노르웨이 76.8%, 스웨덴 74.2%, 핀란드 70.3%로 평균 74.6%이며, 남유럽 4국을 보면 그리스 61.4%, 스페인 65.6%, 이태리 58.7%, 포르투갈 67.8%로서 평균 63.4%임.

- 남유럽 4국(PIGS)의 가운데 특히 그리스의 경우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모두 심각한 상태로서, IMF와 EU의 공적자금 1,1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

< 표 2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국가채무 비율 추이

(%)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북유럽 4국	스웨덴	42.7	76.9	53.6	50.9	38.0	42.1
	노르웨이	29.5	35.4	30.0	44.5	49.8	43.7
	핀란드	14.3	57.2	43.8	41.3	34.1	41.3
	덴마크	65.8	73.9	51.5	36.4	33.5	33.7
남유럽 4국	그리스	89.0	108.7	103.8	98.8	99.2	112.6
	포르투갈	-	64.2	54.4	63.6	66.3	77.4
	스페인	48.5	71.7	69.5	43.0	39.7	54.3
	이탈리	103.7	123.1	110.8	105.9	105.8	114.6

자료 : OECD, EC, Eurostat.

주 : GDP대비 비율,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는 Eurostat 자료를 이용.

- 위 <표 2>와 아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건전화되었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비율이 악화되고 있음

< 표 3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재정수지 비율 추이

(%)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북유럽 4국	스웨덴	3.8	-7.9	4.1	2.4	2.5	-2.1
	노르웨이	2.6	3.5	15.7	15.1	19.1	9.7
	핀란드	5.3	-3.7	6.7	2.9	4.5	-2.8
	덴마크	-1.0	-2.3	2.4	5.2	3.4	-2.7
남유럽 4국	그리스	-15.9	10.2	-0.9	-5.1	-7.7	-12.7
	포르투갈	-4.9	-4.6	-1.4	-6.1	-2.7	-8.0
	스페인	-4.2	-6.6	-0.3	1.0	-4.1	-11.2
	이탈리	11.0	-7.6	-0.3	-4.3	-2.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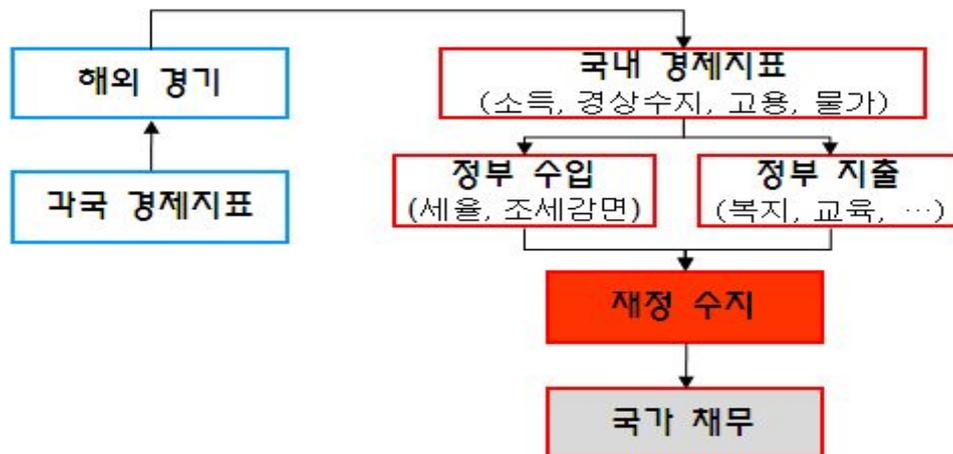
자료 : OECD, EC, Eurostat.

주 : GDP대비 비율, EU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는 Eurostat 자료를 이용.

## 2. 북유럽 복지국가의 건전재정 성공 요인 (남유럽 국가와 비교)

- (15年前 예방주사) 1990년대 초반 국내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은 북유럽국가들은 '93년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한 결과, 15年後 다시 찾아온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음
-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물론 비슷한 시기에 경기침체를 겪었던 덴마크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함
  - 스칸디나비아 3국은 사회복지 감축, 稅收 확충, 긴축재정,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90년대 후반 재정건전화(2)를 달성한 바 있음
  - '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 2차례의 경기침체,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재정위기를 겪었던 덴마크 역시 노사정의 사회협약과 고용의 유연안정성, 재정긴축과 세수 확대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이룩함

< 그림 5 >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북유럽 4국의 1990년 이후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90년대 초반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정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90년대 후반 이후 흑자 재정으로 돌아섰고, '08년 금융위기 前까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2) 서정룡('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한국은행, 2000.9)과 박덕배('스칸디나비아 3국 금융위기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12.16)의 내용을 참조.

< 표 4 > '95년 前後 북유럽 4국의 재정수지 추이 (%)

	1991	1992	1993	1995	2000	2005	2008	2009
스웨덴	-1.1	-7.8	-12.3	-7.9	4.1	2.4	2.5	-2.1
노르웨이	0.2	-1.7	-1.6	3.5	15.7	15.1	19.1	9.7
핀란드	-1.5	-5.7	-7.9	-3.7	6.7	2.9	4.5	-2.8
덴마크	-2.9	-2.6	-3.8	-2.3	2.4	5.2	3.4	-2.7
EU	-	-	-	-	0.6	-2.4	-2.3	-6.8

자료 : OECD, EC, Eurostat.

주 : EU는 유럽연합. Eurostat 자료를 이용.

○ (사회복지 효율화; 지출 감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미리 실시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급증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복지지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감행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함
  - 스웨덴: 조기퇴직연령 상향조정, 조기퇴직자의 연금 수급액 감축, 지급액 기준을 최근 15년간 평균에서 취업기간 전체 평균으로 연장하는 등 연금개혁
  - 노르웨이: 실업보험 수령자격 강화, 실업보험 수령기간 15~3년으로 단축 등
  - 핀란드: 근로자의 실업보험료 납입률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공공부문 연금지급액을 민간부문 수준으로 인하
  - 북유럽 4국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95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등은 증가 추세에 있음

< 표 5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사회보장지출 추이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북유럽 4국	스웨덴	34.3	33.6	32.7	32.0	31.7	30.7	32.0
	노르웨이	26.5	25.8	25.1	26.9	26.9	24.4	23.9
	핀란드	31.5	31.4	29.1	27.0	26.2	25.1	26.7
	덴마크	31.9	31.2	30.1	30.0	29.8	28.9	30.1
남유럽 4국	그리스	19.9	20.5	20.8	21.7	22.7	23.5	24.2
	포르투갈	21.0	20.2	20.3	20.9	21.4	21.7	24.7*
	스페인	21.6	21.5	20.8	20.2	19.8	20.3	20.8
	이태리	24.2	24.3	24.9	24.6	24.8	24.7	26.4
EU평균		27.7	27.9	27.5	27.1	27.0	26.6	27.2

자료 : Eurostat, 『Europe in figures』, 2009.

주 : 사회보장 지출의 GDP대비 비율. 포르투갈은 '05년 수치가 없어서 '04년 수치로 대신함.

- (스웨덴) 스웨덴은 1989년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39%로 OECD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나, 국내 금융위기가 일단락 지어진 '93년 이후 사회복지 감축, 공기업 민영화, 연금개혁<sup>3)</sup> 등을 통해 '90년대 후반이후 건전재정을 달성함

< 표 6 > 스웨덴의 1998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급여수준 결정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 구성된 전체 연금 중에서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점차 감소되도록 재설계
평균보수 결정	평균보수 결정은 15년 최고소득 구간에서 평생소득 구간으로 변경
급여 물가연동	실질 성장률이 일정 기준을 미달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낮아지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높아짐
수급 연령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변화 없지만, 61세부터 수급 개시하면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67세로 수급을 연기하면 증액된 금액을 지급함 (예: 61세 72%, 65세 100%, 70세 157%)
연금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8.5%로 조정, 근로자 기여율 1% → 9.25%로 대폭 인상

자료 : 전주성 외(2001)를 참고로 재작성.

- 통신, 우편, 철도,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3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
- 재정수지 목표를 'GDP 2% 흑자'로 상향하고 다년도 예산계획을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하며 정부지출에 상한을 도입<sup>4)</sup>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추진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세계 3위의 산유국으로서 원유수출 자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국부펀드를 만들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했고, 공공부문의 경쟁도입과 실업보험제도 개혁을 추진
  - 원유수출 자금으로 세계 2위의 國富펀드<sup>5)</sup>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부펀드와 넉넉한 외환보유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증시 안정에 기여함
  - 1997년 실업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실업보험 수령자격을 강화하고, 실업보험 수령기간도 1.5~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실업자 재취업활동을 촉진

3)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급부형; DB형)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기여형; DC형)로 대전환함으로써, 부담금(사회보장세)을 올리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됨.

4)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예산법'(State Budget Act)을 '96년도에 제정하여, '97년부터 시행함.

5) '09년말 기준 세계 1위 국부펀드는 6,300억불 규모의 UAE '아부다비투자청'이며, 4,500억불 규모의 노르웨이 '정부연기금'(NGPF)이 세계 2위 국부펀드.(이데일리, '비밀스런 국부펀드 장부 베일 벗나', 2010.3.18記事)

- (핀란드) 핀란드는 시민당이 집권한 '95년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감축, 가정양육수당 20% 감축, 아동수당 6% 감축<sup>6)</sup>, 사회복지관련 수당의 불가연동 폐지 등 재정절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
- 아울러, '99년 1월부터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률을 종전의 5%에서 20%로 크게 높이고 대신 정부와 기업의 부담률은 각각 40%로 낮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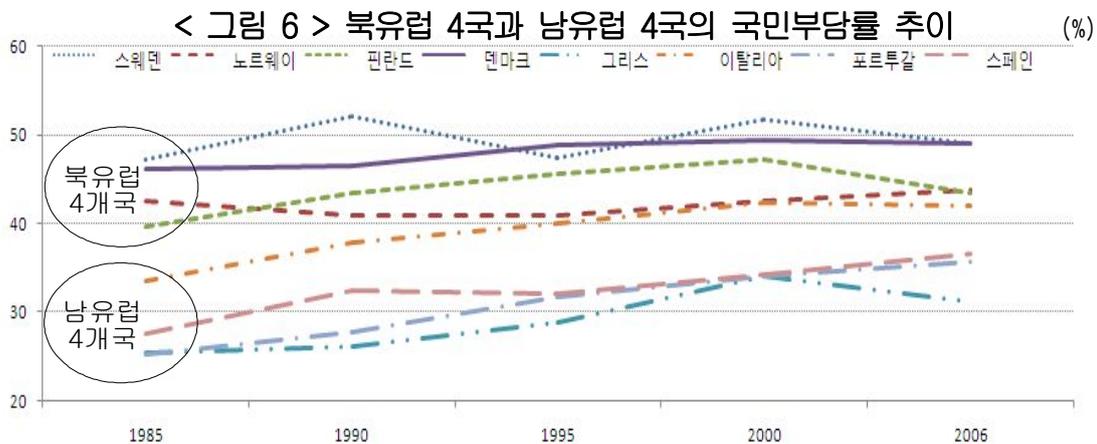
< 표 7 > 핀란드의 '95년 前後 아동수당 변화 (단위 : 마르카, %)

자녀수	1990년	1995년	1999년	'95~'99 증감율
1자녀	297	567	535	-5.6
2자녀	641	1,264	1,192	-5.7
3자녀	1,086	2,090	1,971	-5.7
4자녀	1,664	3,046	2,872	-5.7
5자녀	2,361	4,131	3,895	-5.7

자료 : Hiilao, Heikki (2002), *The Rise and Fall of Nordic Family Policy?*, Turku, University of Turku.  
(이선주 외(2006)에서 재인용)

○ (조세부담 증가; 수입 증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감축과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증가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함

- 위와 같은 북유럽 4국의 재정개혁과 사회보장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국의 국민부담률<sup>7)</sup> 추이를 보면, 산유국인 노르웨이도 예외없이, '85년 이후 '06년까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나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자료: OECD

6) 이선주 외,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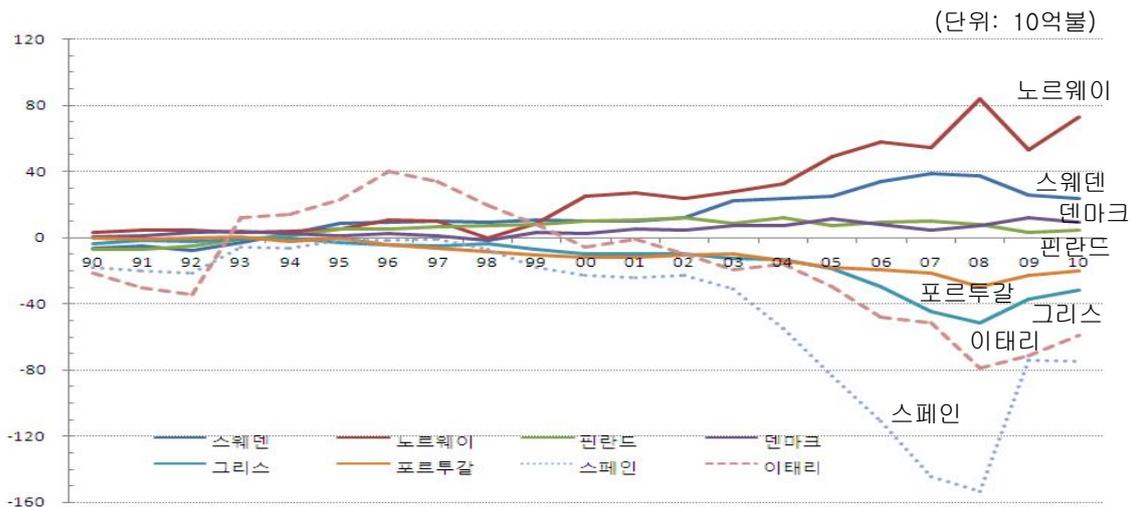
7) 세금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한 수입의 GDP대비 비율

- 1985년과 2006년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47.3%에서 49.1%로, 노르웨이는 42.6%에서 43.9%로, 핀란드는 39.7%에서 43.5%로, 덴마크는 46.1%에서 49.1%로 각각 증가

○ (경상수지 흑자) 북유럽국가들의 높은 산업경쟁력과 이를 토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

- 스웨덴 자동차산업, 핀란드 정보통신산업, 노르웨이 에너지산업, 덴마크 풍력설비산업<sup>8)</sup> 등 북유럽국가별로 특화된 산업부문에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건전재정의 토대를 마련함

< 그림 7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경상수지 추이



자료 : IMF.

- 1990년대 중반 북유럽 4개국의 구조개혁과 산업경쟁력 제고<sup>9)</sup> 노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위 <그림 7>을 보면, 북유럽 4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4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음

8) 덴마크는 풍력발전설비 세계1위 기업 베스타스(Vestas) 외에도 제약부문 세계2위 기업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 당뇨병치료제), 칼스버그(맥주), 레고(완구) 등 세계적 기업들을 보유.

9) 인구 900만에 불과한 스웨덴에서 볼보, 이케아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스웨덴은 매우 작은 시장이며 임금은 높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뿐이며 그러자니 경쟁력을 키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볼보를 버렸다, 볼보를 살렸다', 2008.1.12)

- (미래를 위한 지출 확대) 사회보장 지출은 줄었지만,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R&D)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었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북유럽국가들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됨
- 산유국인 노르웨이를 제외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3국의 경우, '97년부터 '06년까지 연구개발(R&D)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
- 북유럽 4국의 연구개발(R&D)지출 비중은 남유럽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표 8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R&D지출 추이 (%)

		1997년	2001년	2005년	2006년
북유럽 4국	스웨덴	3.47	4.18	3.80	3.73
	노르웨이	1.63	1.59	1.52	1.52
	핀란드	2.70	3.30	3.48	3.45
	덴마크	1.92	2.39	2.45	2.43
남유럽 4국	그리스	0.45	0.58	0.58	0.57
	포르투갈	0.80	0.80	0.81	0.83
	스페인	1.03	0.91	1.12	1.20
	이태리	0.59	1.09	1.09	-
EU평균		1.78	1.87	1.84	1.84

자료 : Eurostat, 『Europe in figures』, 2009.  
 주 : R&D 지출의 GDP대비 비율.

-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공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은 다른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임

< 표 9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공·사교육 지출 비중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EU(27)
공교육비	6.2	5.8	6.8	5.7	4.2	4.1	5.3	4.0	4.7
사교육비	0.2	0.1	0.6	0.1	0.4	0.5	0.4	0.3	0.7

자료 : Eurostat (2009).  
 주1 : 2005년 기준, 공·사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의 GDP 비중.  
 주2 : 미국의 공·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각각 4.9%, 2.4%이며, 일본은 각각 3.4%, 1.5%.

- 위와 같은 연구개발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4개국에 비해 특허출원 및 등록이 매우 많다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음
-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유럽 3국의 특허출원은 EU 평균을 크게 상회

< 표 10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건/ 백만명)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EU(27)
유럽특허출원('05년)	223.2	152.0	156.6	87.1	71.8	26.4	10.7	4.3	101.3
미국특허등록('02년)	113.2	89.5	54.6	31.2	25.5	7.4	2.0	0.9	42.1

자료 : Eurostat (2009).

○ (정부에 대한 신뢰) 북유럽 국가의 높은 세율과 조세부담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재정건전화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는 공공부문의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음

-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사회보장지출<sup>10)</sup>을 뒷받침한 높은 세율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높은 신뢰는 북유럽 국가들의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에 기반
- <표 11>과 같이, 북유럽 4개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투명성, 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 중 덴마크의 점수가 가장 높음. 반면, 남유럽 4개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으며 그 중 그리스의 점수가 가장 낮음

< 표 11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공공부문 신뢰도 및 효율성

정부결정 신뢰	투명성	관료주의*	부패의 존재	稅關 효율성
덴마크(2위)	덴마크(1위)	덴마크(1위)	덴마크(1위)	덴마크(1위)
스웨덴(4위)	핀란드(2위)	핀란드(2위)	핀란드(2위)	핀란드(3위)
핀란드(6위)	스웨덴(4위)	스웨덴(5위)	스웨덴(6위)	스웨덴(6위)
노르웨이(10위)	노르웨이(8위)	노르웨이(8위)	노르웨이(13위)	노르웨이(15위)
포르투갈(17위)	포르투갈(27위)	포르투갈(18위)	스페인(25위)	포르투갈(14위)
이태리(42위)	스페인(43위)	스페인(45위)	포르투갈(30위)	스페인(28위)
스페인(51위)	이태리(45위)	이태리(47위)	이태리(34위)	이태리(32위)
그리스(56위)	그리스(53위)	그리스(51위)	그리스(43위)	그리스(43위)
한국(39위)	한국(37위)	한국(39위)	한국(29위)	한국(22위)

자료 :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9』, 2009.

주1 : 각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순위가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이 많음을 의미.

주2 : ‘관료주의’ 순위가 높은 국가들은 “관료주의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

10) “세금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하이 택스(high tax), 하이 리턴(high return)”이라며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덴마크식 사회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高)세율’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중앙선데이,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 덴마크’, 2007.6.16)

### 3. 교훈 및 정책 과제

#### ○ 첫째, 재정준칙의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211.7조원, 국가채무는 359.6조원(GDP 대비 33.8%), 재정적자는 43.2조원(GDP대비 4.1%)로서 역대 최대규모일뿐만 아니라 증가속도와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10년 하반기부터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
- **재정규율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PAYGO' 원칙<sup>11)</sup>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법안·사업에 대해 재원 대책을 요구하거나,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 등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sup>12)</sup>의 도입,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 둘째, 경기회복 시기에 맞춰 稅收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稅目을 신설하거나 稅率을 인상하는 등 稅收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탄소세(green tax) 도입, 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稅收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핀란드: 사탕·음료稅, 덴마크: 담배稅, 高지방식품稅, 프랑스: 탄소稅, 그리스: 敎會 소득稅 검토, 북아일랜드: 애완견등록비 10배 인상, 영국: 기축보유稅

#### ○ 셋째,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재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

- 1990년대 초반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했던 북유럽 국가들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후순위로 밀렸던 **공기업 민영화 등 과감한 조치**들도 우리 증권시장의 회복에 맞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과 역할이 중복되는 분야와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우선적으로 추진. 예를 들면, 대우조선,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再민영화

11) 'Pay-as-you-go'의 약자로, 미국에서 1993~2002년 시행했던 재정규율의 일종. 의회에서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추진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

12)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상잠재성장률 - 2%p'로 총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주문.

< 표 12 >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주요 내용

회사	공적자금 투입시기	주요 주주 및 지분 구성	시가 총액
대우조선해양	'99년8월	산업은행 31.26%, 캠프(kamco) 19.11%	40,671억원
대우증권	'99년8월	산업은행 39.1%	40,206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	'99년8월	캠프, 우리은행 등 채권단 97.5%	非상장
대우인터내셔널	'99년8월	캠프 35.53%, 수은 11.24%, 산은자산운용 7.15%, 정책금융공사 5.31%	35,623억원
현대건설	'01년3월	정책금융공사 11.13%, 외환 8.72%, 우리금융 7.52%, 국민연금 6.03%	60,243억원
하이닉스	'01년10월	정책금융공사 5.49%, 국민연금 5.03%	167,625억원
쌍용양회	'01년10월	산은 14.86%, 신한 13.39%, 서울보증 11.33%	4,778억원
쌍용건설	'99년3월	캠프 38.75%	1,837억원
서울보증보험	'98년11월	예금보험공사 93.85%	非상장
우리금융지주	'01년3월	예금보험공사 56.97%	143,874억원

주 : 시가 총액은 2010년 4월30일 기준. 캠프(kamco)는 '자산관리공사'.

○ 넷째, 人的자원 경쟁력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북유럽 3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1천만명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人的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공교육 투자,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시스템 강화로 산업경쟁력 제고
- 중등교육 과정에서 직업 소개와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을 내실화하며, 대학과 산업현장의 활발한 교류를 확대하고, 실업기간의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구직면담을 내실화하는 등 평생교육시스템을 확충

○ 다섯째, 향후 높아질 조세부담을 선도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세율과 조세부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의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음
-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가피한 높은 사회복지 지출과 높은 조세부담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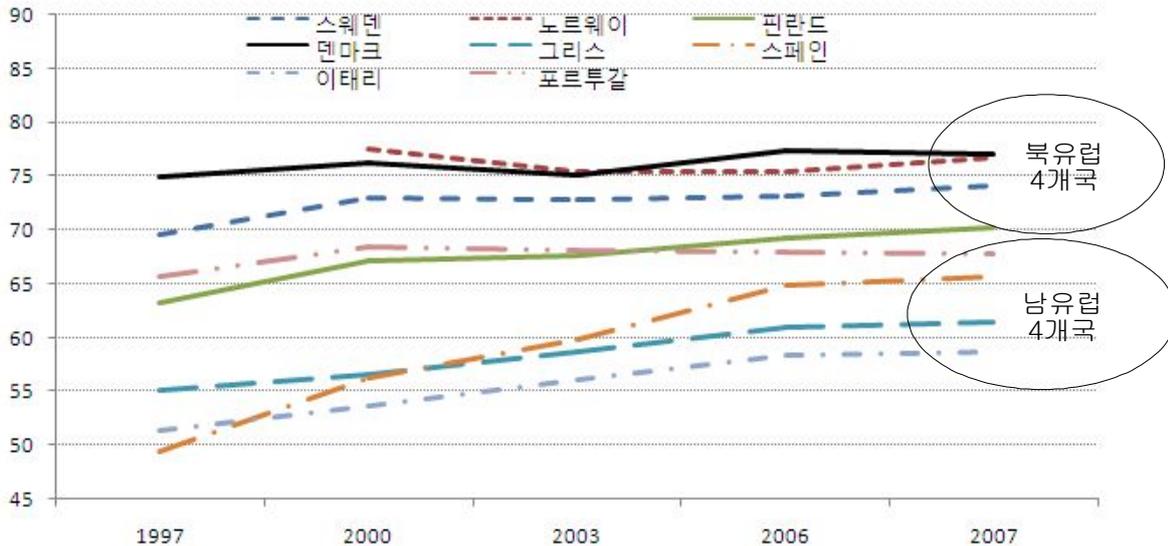
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선임연구원 조호정 (2072-6217, chjss@hri.co.kr)

< 참고 문헌 >

- 국회 예산정책처(2010),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5.3
- 김대철(2008), '노르웨이 석유기금(NGPF)의 운용 현황 및 관리운용 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7
- 김홍중(2010),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원인 및 전망', 세미나 자료, 2010.4
- 박덕배(2008), '스칸디나비아 3국 금융위기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12
- 서정룡(2000),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한국은행, 2000
- 윤석명(2006), '핀란드 연금개혁 동향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0
- 이선주 외(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일카 파이팔레 위움(조정주 옮김(2010)), 『핀란드 경쟁력 100』, 2010
- 전주성 외(2001), 『주요국의 국가채무 축소경험과 제도적 기반연구』, 2001.11
- 주종환(2010), 『덴마크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일빛, 2010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2010), 『핀란드 교육혁명』, 2010
- 홍석표(2009),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Eurostat(2009), "Europe in figures", European Commission, 2009
- IMD(2009),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9
-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4a
- , "OECD Economic Outlook", 2001a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09
- , "Economic Forecast", Autumn 2008
-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http://www.kcif.or.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통계청 국제통계 [http://kosis.kr/nsp/abroad/abroad\\_04List.jsp](http://kosis.kr/nsp/abroad/abroad_04List.jsp)
- OECD 통계 <http://stats.oecd.org/index.aspx>
- World Bank 국가별통계 <http://data.worldbank.org/country/>
- Eurostat 홈페이지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별첨 1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고용률 비교



자료 : Eurostat (2009), "Europe in figures".

< 별첨 2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평생교육 참가자 비율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EU(27)
2007년	32.0	23.4	29.2	18.0	6.2	10.4	4.4	2.1	9.7
2003년	31.8	22.4	24.2	17.1	4.5	4.7	3.2	2.6	8.5

자료 : Eurostat (2009).

주 : 2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에서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 별첨 3 > 북유럽 4국과 남유럽 4국의 지식서비스분야 종사자 비율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EU(27)
2006년	47.7	41.1	43.5	46.1	30.4	27.9	23.1	25.0	32.8
2001년	46.1	39.1	42.7	43.6	27.0	24.8	19.7	22.5	30.9
1996년	44.2	37.4	40.1	40.6	24.7	23.6	22.0	20.5	-

자료 : Eurostat (2009).

주 : 전체 취업자 중에서 '지식서비스분야'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 부표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4	-6.4	-0.7	2.2	5.6	3.1
유로 지역	0.6	0.8	-0.3	-0.4	-1.9	-4.1	-2.5	-0.1	0.4	0.1	1.0
일본	-1.2	2.7	-4.4	-4.9	-10.3	-5.2	-13.7	6.0	-0.6	3.8	1.9
중국	9.6	10.6	10.1	9.0	6.8	8.7	6.2	7.9	9.1	10.7	10.0
한국	2.3	5.5	4.3	3.1	-3.4	0.2	-4.3	-2.2	1.0	6.0	4.5

주 1) :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4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4월30일	5월6일	전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66	3.39	-0.27%p
	엔/달러	90.76	96.65	92.93	94.03	90.75	-3.28¥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323	1.2628	-0.0695\$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1,009	10,520	-489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11,057	10,696	-36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61	3.79	0.18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08.4	1,141.3	32.9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741.6	1,684.7	-56.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4월30일	5월6일	전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6.15	79.88	-6.27\$
	Dubai	36.45	71.85	78.06	85.78	81.38	-4.4\$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7.71	262.76	-14.9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